

찜 케이크 샌드위치



이레 베이커리



지하철 3호선 양재역에 위치한 이레베이커리(대표 배 전)는 개업한 지 10년 정도 됐다. '번 제과'로 시작해 '상제리제'를 거쳐 약 2년 전에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었다. 이 곳은 배후에 아파트 단지, 중고등학교를 끼고 있고 옆쪽으로는 지하철 역이 있어 A급 상권에 위치한 대표적인 체과점으로 꼽힌다.

이 업소의 주 소비층은 20대 여성. 매출의 90% 가까이가 이들의 소비로 채워진다. 주 소비층의 영향으로 생크림, 무스 조각 케이크가 주력 제품이다.



이 은 선

최근에는 매장 유리쪽에 피자, 샐러드 코너를 설치했다. 이들 코너에서 각각 하루 평균 4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. 일단 성공적이라는 평가다.

이 업소의 신제품 출시는 치밀한 준비과정을 거친다. 우선 샘플을 만들고 원가를 계산한다. 그런 다음 직원들이 시식을 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한다. 완성품을 출시하기 전 먼저 POP 등 홍보물을 만든다. POP 부착과 동시에 제품을 출시한다. 이 모든 과정에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. 짬케이크 샌드위치는 약 1년 전에 개발됐다. 개당 1,300원에 하루 50개 정도가 꾸준히 판매되고 있다.

■ 재료 및 원가계산표(24개분)

	재료	중량(g)	가격(원)
반죽	박력분	550	275
	설탕	350	245
	베이킹파우더	7.5	15
	유화제	35	98
	우유	135	122
	계란	9개(540)	720
	소금	5	5
충전물	물엿	15	9
	오이	150	270
	당근	150	278
	원두콩	50	200
	사과	1개(150)	1,000
	후추	2	135
	마요네즈	200	250
합계		3,540	5,222

■ 제품 특성

- 빵으로 만든 샌드위치보다 부드러워 젊은 여성들이 선호한다.
- 충전물로 들어가는 삶은 계란과 사과의 맛이 결합돼 독특한 맛을 낸다.
- 오븐이 필요없고 작업 공정이 간단하다.

■ 제조시 주의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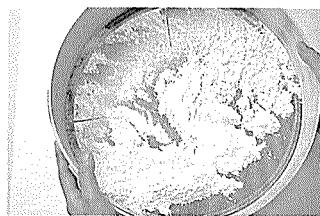
- 오버 믹싱에 주의한다. 약 60% 정도까지 반죽을 친다.
- 팬팅시 양이 너무 많으면 찌고 난 후 옆이 터지므로 틀의 70% 정도만 반죽을 채운다.
- 짬케이크를 자를 때 45° 각도로 비스듬히 자른다.

• 분할 중량	148g
• 개당 판매가(이레베이커리)	1,300원
• 개당 생산원가	218원
• 개당 원가비율	17%

■ 만드는 법

■ 짬케이크

1 박력분과 베이킹파우더를 체로 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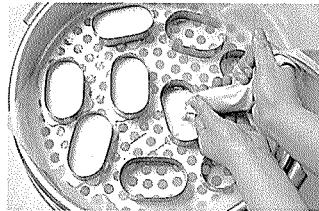


2 계란, 유화제, 물엿, 소금, 설탕을 섞는다.

3 ②에 제친 박력분과 베이킹파우더를 넣고 저속으로 믹싱하다가 우유를 서서히 투입한 후 고속으로 2분, 저속으로 1분간 믹싱 한다.



4 틀의 70% 정도까지 반죽을 담는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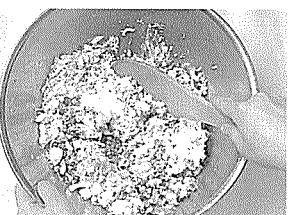
5 짬통에 10분간 찐다.

■ 충전물

1 오이, 당근을 깎둑썰기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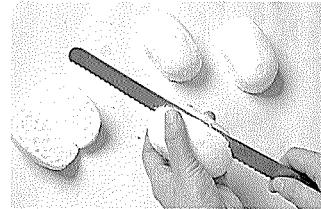
2 삶은 계란을 체칼로 얇게 썬다.

3 모든 재료를 마요네즈와 함께 섞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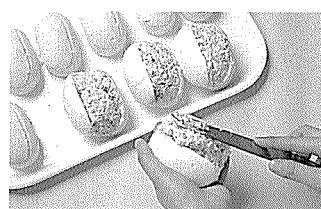


■ 마무리

1 짬케이크를 45° 각도로 자른다.



2 충전물을 짬케이크 속에 넣는다.



3 슬라이스 퍼즐을 하나씩 올리고 랩으로 포장한다.